

시조에 나타난 남성의 이상적 삶과 그 변주의 양상*

정인숙**

〈국문초록〉

본고는 남성의 이상적인 삶을 표방한 두 편의 사설시조가 후대에 지속적으로 향유되면서 다양하게 변주된 양상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노랫말의 변주가 수용자의 다양한 반응과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할 때, 그 변주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후대에 이상적 삶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욕망과 현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삶의 지향점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탐색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우선 논의의 중심이 되는 두 작품은 <남아의 소년행락~>이라는 작자미상의 사설시조(<1>)와 <대장부 공성신퇴후하야~>라는 이정보의 사설시조(<2>)이다. 전자가 남성들이 욕망하는 이상적 삶을 일대기 형식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면, 후자는 치사 이후에 물질적 풍요를 근거로 한 여유롭고 풍류적인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이 후대에 변주된 양상을 보면 첫 번째로 호기롭고 유락적인 삶이 강조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1>과 <2>의 노랫말을 적절히 결합하여 유락적 성격을 강조한 작품(<3>)과, <2>의 시상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공성신퇴’라는 어휘를 배제한 채 유락적 삶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나’라는 주체를 부각시킨 작품(<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부귀공명의 불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안적 삶에 대한 소신을 드러낸 경우이다. 이는 작품 <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외부 세계와의 부조화 속에 욕망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점이 <3>, <4>와 다르다. 세 번째는 세속적 출세의 욕망에서 벗어나 행복한 노년에 대한 관심을 표출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부귀공명의 욕망을 초탈하고 자발적으로 자연에 돌아와 노년을 보내면서 깊은 내면의 성찰을 보여준 작품(<9>)이 있는가 하면, 부귀공명의 욕망에서는 벗어난 듯하면서도 여전히 여색

* 이 논문은 제56차 한국시조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2014.6.20/성결대)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정토론을 맡아 주신 김상진 선생님과 김현식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나 장수의 욕망을 강하게 부각시킨 작품(<10>)도 확인된다.

이러한 노랫말의 변주 양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변주 양상은 우선 유흥공간의 간섭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유흥공간의 분위기에 요구되는 노랫말이 선택 첨가되면서 자연스럽게 호기롭고 유락적인 삶이 강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유락적 분위기의 고조와 더불어 풍요로운 물질적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유흥을 만끽하는 자신을 부각시킴으로써 호기로운 삶의 주인공을 ‘남아(대장부)’에서 ‘나’로 구체화하는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변주 양상은 처음부터 부귀공명의 실현불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는 점에서 외부적 성공이 쉽지 않은 계층적 한계를 엿보게 한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경우는 그러한 계층적 한계에 공감하는 수용자가 적극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세 번째 변주 양상은 무엇보다 노년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출사의 경험이 있든 그렇지 않든 노년의 행복한 일상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점은, 늙어서의 편안한 삶 혹은 쾌락적 삶을 갈구하는 통속적 욕망을 스스로 없이 표출한 것으로 추상적 이념이 아닌 구체적 삶의 일상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면모를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 남성, 이상적 삶, 욕망, 변주, 유락, 대안적 삶, 노년

1. 머리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것이다. 출세, 부귀영화, 장수, 가문의 번영 등 그 소망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우리 문학에는 전통사회에서 남성들이 꿈꾸었던 삶의 모습을 잘 담아낸 작품들이 있어 흥미롭다. 예를 들어 <남자가(男子歌)>¹⁾는 ‘남자’의 일생을 시간적 순서로 서술한 국문가사로 남성의 이상적 삶의 지향이 제시된 작품이다. 여기서 ‘남자’는 출생 이후 유년기, 성년, 과거급제, 관직

1) 이본에 따라서는 제목이 ‘남아가’인 경우도 있다.

역임, 봉조하(奉朝賀) 휴퇴(休退) 후 노년기까지 평생 복록을 누린 ‘복인(福人)’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최근 이 작품을 대상으로 ‘남자’의 이상적 삶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²⁾ 전형화 된 틀에 맞춰 형성된 무미건조한 일생이 아닌 생생한 현장감과 감감적인 불거리로 가득한 화려한 일생으로 제시된 점이 흥미롭다. 특히 작품 속 ‘남자’가 멋스러운 풍류와 문화적 흥취를 즐길 줄 아는 호기(豪氣) 있고 문식 있는 서울인의 모습을 보여준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남성의 일생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작품은 시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갈래의 특성 상 시조는 가사처럼 생애 전반이 세세히 서술되기 보다는 선택된 시어를 통해 압축적인 형태로 제시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 포착된다는 점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특히 ‘남아(男兒)’ 혹은 ‘대장부(大丈夫)’ 등의 어휘를 배치하여 생애 전반에 대한 포부나 욕망을 드러낸 작품의 경우 당시 사람들이 꿈꾸었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18세기 가집에 실린 두 편의 사실시조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두 작품은 후대의 여러 가집에 지속적으로 수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노랫말의 선택이나 확장 등을 통해 다양하게 변주된 사례를 보여준다. 그 변주의 양상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남성의 호기로운 삶의 나열이 아닌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만날 수 있고,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즐거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 당당히 제시하는 소신도 발견할 수 있다. 노랫말의 변주가 수용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기인한 것이라 할 때, 그 변주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후대에 이상적 삶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욕망과 현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삶의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

2) 정인숙, 「〈남자가〉에 나타난 ‘기념자’의 일생 서술의 특징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28, 국문학회, 2013 참조.

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비록 노랫말의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두 편의 사설시조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더라도 노랫말에 약간의 유사성이 있는 작품들은 논의 전개상 적절히 선택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대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2. ‘남아(대장부)’의 ‘할 일’ : 이상적 삶에 대한 욕망

이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남아’ 혹은 ‘대장부’의 생애를 담은 두 편의 사설시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남아(대장부)’의 “희을 일”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희을 일”이란 단순히 ‘할 일’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해 봐야 할 일’ 또는 ‘해 보고 싶은 일’ 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듯 보인다. “희을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1>

男兒의 少年行樂 희을 일이 호고 하다
 글넘기 칼쓰기 활쏘기 물들니기 벼슬하기 벗사귀기 술먹기 쫓하기 花朝月夕
 노리하기 오로 다 豪氣로다
 늑게야 江山에 물러와서 맞갈기 논미기 고기 낚기 나모 뷔기 거른고 텃기 바
 독 두기 仁山智水 遨遊하기 百年安樂하여 四時風景이 어너 그지 이시리
 (『청구영언』(진본) #566)³⁾

작품 <1>은 작자미상의 사설시조로 『청구영언』(진본)을 비롯한 여러 가집

3) 이 글에서 인용하는 시조는 기본적으로 『고시조대전』(김홍규 외 편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을 참조하되 필요에 따라 가집 원본도 함께 참조했음을 밝힌다.

에 실려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남성들이 욕망하는 이상적 삶을 일대기 형식으로 형상화한 점이 주목된다. 우선 초장에서는 남아의 소년행락으로 “히을 일”이 많다고 언급하고 중장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글 읽기, 칼 쓰기, 활쏘기, 말 달리기, 벼슬하기, 벗 사귀기, 술 먹기, 첩하기, 화조월석(花朝月夕) 놀이하기 등 모두 아홉 가지가 나열된다. 이를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선비가 익혀야 할 육예(六藝)⁴를 비롯한 학습과정(글날기~물들리기)과, 관료생활(벼슬하기), 유흥생활(벗사귀기~노리하기) 등으로 요약되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모두 ‘호기(豪氣)’로 일컬어진다. 종장에는 늙어서 강산에 물러나와 밭 갈기, 논매기, 고기 낚기, 나무 베기, 거문고 타기, 바둑 두기, 강산 오유(遨遊)하기 등 일곱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모두 치사(致仕) 이후의 유유자적한 삶을 반영한다. 특히 ‘인산지수(仁山智水)’라는 어휘를 배치하여 자연을 통해 어진 덕성과 지혜를 기르는 군자로서의 모습을 투영시킨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치사 이후의 노년의 생활은 소년시절의 호기로운 삶과 대비되면서 처사(處士)로서의 담박한 삶을 보여 주는 듯하다. 주색(酒色)의 욕망에서도 어느 정도 탈피한 자연과 벗하는 소박한 일상이 그려진 듯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으로 보기에는 주저되는 면이 있다. 즉 이 작품에 그려진 노년의 삶은 그다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여유롭고 편안한 충족된 삶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밭 갈기, 논매기, 고기 낚기, 나무 베기 등의 행위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이라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닦고 한가롭게 지내는 생활의 일부로 배치된 듯 보인다. 종장에 나오는 ‘백년안락(百年安樂)’이라는 어휘에서 그러한 노년의 여유롭고 편안한 삶이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바라는 욕

4) ‘육예’란 유학교육에서 다루는 여섯 가지 기초 교양으로 예(藝),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 등을 가리킨다.

망이 엿보인다. 결국 이 작품에서 남성의 삶이란 젊었을 때는 온갖 호기로운 생활을 다 누리고 늙어서는 자연에 돌아와 오래도록 안락하게 지내는 이상적인 삶이라 할 수 있다.

<2>

大丈夫 | 功成身退後야 林泉에 집을 짓고 萬卷書를 싹하 두고
 종하여 밭 갈리고 甫羅미 질드리고 千金駿駒 알피 밧고 金樽에 술을 두고
 絶代佳人 것퇴 두고 碧梧桐 검은고에 南風詩 놀리하며 太平烟月에 醉하여 누
 엿신이

암아도 平生 희을 일이 잇분인가 호노라 (『해동가요』(주씨본) #388)

작품 <2>는 작자가 이정보(李鼎輔, 1693~1766)로 알려진 사설시조로 『해동가요』(주씨본)를 비롯한 여러 가집에 두루 실려 있다. 앞서 작품 <1>이 남성의 삶을 일대기 형식으로 형상화한 데 비해 이 작품은 치사 이후의 삶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우선 이 작품은 초장에 ‘공성신퇴(功成身退)’라는 어휘가 배치된 점이 눈에 띈다. 자연으로 물러나기에 앞서 대장부로서 공을 이루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셈이다. 작품 <1>에서 소년행락의 하나로 ‘벼슬하기’가 큰 비중 없이 나열되던 것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공성(功成)’이 대장부의 삶에 있어 일차적인 요소로 배치되어 있다. 공을 이루는 것, 그것은 세상에 나가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드러내는 것이고 곧 입신양명(立身揚名)이라 할 수 있는데, 공을 이룬 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유학자로서의 기본자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공성신퇴 후의 삶은 결코 소박한 처사적 삶이 아닌 호사스럽고 유락적인 삶으로 그려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 중장에 나열된 보라매, 천금준구(千金駿駒), 금준(金樽)의 술, 절대佳人(絶代佳人), 벽오동(碧梧桐) 거문고 등의 어휘에 주목해 보자. 먼저 ‘보라매’는 난 지 일 년이

안 된 매로서 길들이기 쉽고 활동력이 왕성하여 최상품의 사냥매로 일컬어진 다. 보라매를 이용한 사냥은 자연에서 호매한 지기(志氣)를 기르는 행락으로 옛 선인들이 즐겨해 왔던 것으로, 이 작품에서 ‘보라매를 길들이는’ 행위는 곧 멋진 사냥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라매를 등장시켜 사냥의 즐거움을 표현한 여러 편의 시조를 통해 엿볼 수 있듯이⁵⁾ 보라매를 앞세우고 나서는 사냥은 최고로 호쾌한 놀이였다. 한편 보라매와 더불어 사냥에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말이다. 여기서는 천금의 값이 나갈 만큼의 훌륭한 말이 등장한다. 게다가 금으로 만든 술항아리에 술을 담아 두고, 세상에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여인을 곁에 두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인다. 사대부의 풍류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이러한 주색(酒色)에 대한 욕망은 시조에서 흔히 발견되는데⁶⁾ 앞서 <1>에서 소년행락의 하나로 ‘술 먹기’ ‘첩하기’ 등으로 간단히 제시된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금준, 절대가인 등의 어휘를 통해 호사스럽고 화려하게 제시되고 있다. 거기에 벽오동으로 만든 좋은 거문고에 남풍시(南風詩)를 노래하면서 ‘태평연월(太平烟月)’에 취하여 누워 지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여유 있고 유락적인 삶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기서 천금준구, 절대가인 등의 용어로 표현된 삶은 “풍부한 물질적 기반 위에서 누리는 현세적 삶의 향수⁷⁾”로서 이는 물질적 풍요를 근거로 한 현실 세계의 여유롭고 풍류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작자 이 정보는 서울의 도시문화에 바탕을 둔 향락적이고 유희적인 생활을 즐겼고,⁸⁾

5) “자 나문 보라매를 엮그제 ㄱ슨 세혀/ 썩짓체 방울다라 夕陽에 밧고 나니/ 丈夫의平生得意은 이뿐인가 호노라” “자 나문 보라매를 구름 밧기 썩위두고/ ㄷ는 물 체쳐서 큰 길의 노하가니/ 아마도 丈夫의 快事는 이뿐인가 호노라” “龍 ㄹ치 혼건는 물게 즈나문 보라매 밧고/ 夕陽 山路로 기 부르며 도라드니/ 아마도 丈夫의 노리는 이 ㄷ흔가 호노라”(말줄 필자)

6)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酒色이 敗人之本인 줄을 나도 暫間 알건마는/ 먹던 술 이즈며 네던 길 아니 네라/ 아마도 丈夫의 ㅎ을 일이 酒色인가 하노라”

7)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 세계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3, 58면.

은퇴 후에 한강 주변의 학탄(鶴灘)으로 돌아와 풍류적인 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⁹⁾ 벼슬살이에서 물러난 사대부가 여유롭게 여가생활을 즐기는 모습은 종종 시조를 통해 확인되는바,¹⁰⁾ 작품 〈2〉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이 작품은 작자의 실제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장부로서의 호기롭고 유락적인 삶을 다소 과장되게 드러내고 그런 삶의 욕망도 은연중에 표출하고 있는 듯 보인다. 보라매, 천금준구, 금준의 술, 절대가인, 벽오동 거문고 등 연속적으로 배치된 어휘들을 통해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종장에서 ‘아마도 평생 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고 하며 증장에서 화려하게 제시한 삶이야말로 “대장부로서 마땅히 표방해야 하는 것”¹¹⁾이라 노래한 것도, 그런 삶에 대한 과시이자 욕망의 표출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행 연구 중에는 이 작품을 “공성신포 후에 누리고 싶은 생활을 미리 설계해 놓은 것”¹²⁾으로, 혹은 “화려한 귀향에의 꿈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¹³⁾으로 해석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작품 〈2〉가 치사 후에 누리는 유락적 삶이 매우 화려하고 호사스럽게 그려져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 8) 조태흠, 『이정보 시조에 나타난 도시시정의 풍류』, 『한국문학논총』38, 한국문화회, 2004, 4면 참조
- 9) 이상원, 『이정보 시조 해석의 시각』, 『한국시가연구』12, 한국시가학회, 2001, 187면 참조
- 10) 류해춘,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가활동의 양상』, 『시조학논총』21, 한국시조학회, 2004 참조
- 11) 김상진, 『시조에 나타난 조선 후기 풍속도-이정보 시조를 중심으로-』, 『은지논총』27, 온지학회, 2011, 57면.
- 12) 박노준, 『이정보 시조와 퇴행 속의 진경』, 『고전문학연구』8, 한국고전문학회, 1993, 165면
- 13) 신경숙, 『사설시조 : 사대부가 노래한 시정 풍속도-이정보』, 김종철 외,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2, 휴머니스트, 2006, 265면.

3. 노랫말의 구성 및 의미 변화에 따른 변주의 양상

3.1. 호기롭고 유락적인 삶의 강조

앞서 작품 <1>에서의 남성의 삶은 젊었을 때는 호기로운 생활을 누리고 늙어서는 자연으로 물러나 편안하고 여유롭게 지내는 생활로 형상화되어 있고, 작품 <2>에서는 공성신퇴 후에 자연을 벗하며 여유 있고 유락적인 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다음에 소개할 작품은 <1> 또는 <2>의 노랫말과 친연성을 보이면서도 미세한 의미 변화를 보여 주목된다.

<3>

男兒 少年 行樂 혈일이 허다하다

臨泉 草堂上에 萬卷 詩書 싸아두고 絶代佳人 엽헤 두고 졸업는 거문고 언저
 늦고 보라미 길들여 두고 臨水登山하여 창스기 말타기 싱각하고 對
 月看花호니 술 먹기 벗 스국기와 水邊에 고기 낚기

아마도 樂호여 사시춘에 節 가는 쥬를 (『시조·가사』(박노춘본) #10)

작품 <3>은 작품 <1>, <2>의 노랫말이 결합된 듯한 형태를 보이면서도 무엇보다 ‘소년행락’의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 작품의 초장은 작품 <1>의 초장과 흡사하고, 중장에는 작품 <1>과 <2>의 일부 구절이 선택 삽입되어 있다. 여기서는 ‘집’이 아닌 ‘초당’으로 공간이 바뀌어 있고 그것을 ‘짓는’ 행위도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서 초당은 노년에 새로 마련한 거처가 아닌 소년행락을 위한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기에 특별히 ‘짓는’ 행위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작품 <2>에 등장했던 만권서서, 절대佳人, 거문고, 보라매 등의 어휘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작품 <1>에서 보였던 말 달리기, 술 먹기, 벗 사귀기 등의 소년행락의 내용과 발 갈기, 고기 낚기 등의 노년의 생활이 섞여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 작품

은 작품 <2>에서의 은퇴 후의 생활과 작품 <1>에 제시된 남아의 소년행락의 내용이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작품 <2>의 초장에 제시된 ‘공성신포’라는 어휘가 탈락되어 있어 <2>에서 은퇴 후의 생활로 나열된 것이 여기서는 모두 ‘소년행락’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특징을 보인다. 결국 이 작품은 작품 <1>과 <2>의 노랫말이 ‘소년행락’의 범주 안에 재배치되면서 유락적인 삶의 표현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장에서 “樂호여” 사계절이 모두 봄과 같이 느껴져 계절 가는 줄 모르겠다고 마무리한 것도 그만큼 소년행락을 만끽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작품을 살펴보자.

<4>

林川의 草堂짓고 萬卷 書冊 싸아 늦코

烏騅馬 살기게 메계 흐르는 물가의 굽 싹겨 세고 보리미 길드리며 절디佳人
 껏테 두고 梧桐 거문고 식 줄 언저 세워두고 生簧 洋琴 奚琴 저피리 一等 美色
 前後 唱夫 左右로 안저 엇쪼로 농락할제

아마도 耳目之所好와 無窮之至所樂은 나췌인가 (『調 및 詞』 #70)

앞서 작품 <3>이 작품 <1>과 <2>의 노랫말이 적절히 결합된 구성을 보여주었다면, 작품 <4>는 특히 작품 <2>와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장은 작품 <2>의 초장에서 “大丈夫 | 功成身退後호야”라는 어구만 생략된 형태이고, 중장은 작품 <2>의 중장보다 구체화되고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천금준구’는 ‘오추마(烏騅馬)’로 바뀌었고 ‘앞에 매고’는 ‘살찌게 먹여 흐르는 물가에 굽 싹겨 세우고’로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벽오동 거문고’도 ‘벽오동 거문고 새 줄 없어 세워두고’라 하여 구체적인 행위가 들어간 표현으로 변모되어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거문고를 비롯하여 ‘생簧(生簧)’, ‘양금(洋琴)’, ‘해금(奚琴)’, ‘저피리’ 등이 추가되고 ‘일등 미색(美色)’과 ‘창부(唱夫)’까지 등장하여 풍류의 현장을 더욱 실감나게 보여준다. 이는 중장에 나오는 ‘이목지소

호(耳目之所好)'와 연결되는 것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랫말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종장에서는 '무궁지지소락(無窮之至所樂)'이라 하여 자연에서의 삶의 즐거움을 표방하고, '나뿐인가~'라 하여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바로 '나'임을 과시하기에 이른다. 정리하자면 작품 <4>는 작품 <2>의 시상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大丈夫 | 功成身退後 ㅎ야"라는 어구는 생략하고 유락적인 삶의 모습을 최대한 확장하면서 '나'라는 주체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노랫말을 변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작품 <3>과 <4>는 노랫말 구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공통되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이상적인 삶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 <1>에 나오는 '벼슬하기'나 작품 <2>의 '공성신퇴'라는 어휘는 배제된 채, 이들 작품은 호기롭고 유락적인 삶이 강조되어 있다.

3.2. 부귀공명의 불가능성 인식과 대안적 삶의 소신 강조

앞서 살펴본 작품 <3>, <4>가 '벼슬하기' 혹은 '공성신퇴' 등의 어휘는 배제된 채 호기롭고 유락적인 남성의 삶만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음의 작품은 '부귀공명'의 문제가 처음부터 정면에 대두되고 있어 갈등을 예고한다.

<5>

大丈夫 三十前에 富貴功名 못할진대
 차라리 名山大川 茂林修竹을 골나 草堂三間 精舍이 짓코 石上의 碧梧桐 三尺의 잘너 五絃琴 줄을 골나 絶代佳人 곁희 두고 南風詩에 和答 ㅎ며 康衢煙月의 半醉코 누어쓰니 게 ㄴ이라 일으기를 自暴自棄라 ㅎ야 是非는 잇다마는
 人間苦樂 議論컨대 事無閑身이 이 안인가 (『율보』 #73)

이 작품은 종장만 보면 작품 <2>와 비슷하다. 명산대천에 초당을 짓고 벽오

등으로 오현금을 만들며 절대가인을 곁에 두고 남풍시에 화답하며 강구연월에 반취하여 누위 지내는 삶의 모습이 작품 <2>의 중장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품 <5>의 중장에 제시된 삶은, 대장부가 나이 삼십 전에 부귀공명을 이루지 못할 경우를 상정하여 차선책으로 마련된 것이기에 작품 <2>에서 공성신토 후에 누리는 삶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시적 화자는 부귀공명의 소망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는 처음부터 외부 세계와의 부조화를 노정한 것이기도 하다. 중장 첫머리에 배치된 ‘차라리’라는 어휘는 마땅히 성취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절망감을 잘 반영해 준다. 더구나 중장의 후반부에 이르면 자신의 삶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속내가 포착되기도 한다. ‘누군가 이르기를 자포자기(自暴自棄)라 하여 시비는 있다’고 한 고백은, 부귀공명을 이루지 못한 채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사는 삶이 타인에게는 자포자기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화자가 외부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중장에서는 인간고락을 논하자면 ‘사무한신(事無閑身)¹⁴⁾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소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일 없이 한가롭게 지내는 삶은 결코 자포자기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공명을 다투는 번잡한 세상에서 빚겨나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장부로서 부귀공명을 이루지 못할 바에야 굳이 연연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 속에서 유락적인 삶을 선택한 것에 자부심을 보인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시조를 살펴보도록 하자.

<6>

丈夫로 삼겨나서 立身揚名 못홀지면
출하리 썰치고 일 업시 늘그리라

14) ‘사무한신’이란 일 없이 한가롭게 지낸다는 뜻이다.

이뵈기 碌碌흔 營爲에 걸릴 길 줄 이시라 (『청구영언』(진본) #247)

<7>

대장부 세상의 ㄴ서 공성신포 못할진디
차라리 다 버리고 올림쳐스 몸니 되어
공산의 잠긴 달 거러두고 완월장취 (『가사』(나손본) #148)

<8>

大丈夫 世上에 나서 事業을 못할진덴
차라리 호미 메고 田園에 늘그리라
門前에 靑雲이 업기로 그제 무삼 시비 (『시조국문가사』 #36)

위의 시조는 작품 <1>, <2>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 <5>와 관련하여 함께 살펴볼 만하다. 이들 작품은 모두 대장부로 태어나 입신양명(공성신포 또는 사업)을 못할 경우 어떻게 살 것인지 차선의 삶을 모색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작품 <6>, <7>, <8> 모두 ‘차라리 떨치고’ ‘차라리 다 버리고’ ‘차라리 호미 메고’ 등 중장에 ‘차라리’라는 단어가 배치되어 있는 점이 작품 <5>와 동일하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된 삶의 모습은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다. 먼저 작품 <6>은 조선후기 가객인 김유기(金裕器)가 지은 시조로 입신양명을 못한다면 ‘일 없이 늙으리라’고 하여 앞서 작품 <5>의 중장에 배치된 ‘사무한신’의 어휘와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작품 <7>에서는 ‘운림쳐사(雲林處士)’가 되어 ‘완월장취(玩月長醉)’ 하겠다고 하여 자연을 만끽하고 술을 즐기는 유락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점이 작품 <5>의 중장과 비슷하다. 한편 작품 <8>에서는 호미를 메고 ‘전원에서 늙으리라’고 선언하면서 문 앞에 ‘청운(靑雲)’¹⁵⁾이 없는 것이 무슨 시비가 있겠느냐고 묻고

15) ‘청운’이란 높은 지위나 벼슬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있는데,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자연과 벗하며 지내는 삶에 대해 작품 <5>에서 ‘자포자기라 하여 시비는 있다’고 한 것과는 달리 전원에서의 삶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피력한 점이 흥미롭다.

3.3. 세속적 출세의 욕망 초탈과 행복한 노년의 관심 표출

앞서 살펴본 작품 <5>가 입신양명이나 부귀공명이 중요한 삶의 지향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하고 그 차선책을 모색한 작품이라면, 다음에 살펴볼 작품은 세속적 출세의 욕망 자체를 초탈하여 자발적으로 자연에 돌아와 노년을 보내는 삶을 보여준다.

<9>

功名을 헤아리니 榮辱이 ㅅ이로다

東門에 掛冠호고 田廬의 도라와서 聖經賢傳 헛쳐 노코 읽기를 罷호 後에 압
 님에 슬진 고기도 낙고 뒷피에 얽긴 藥도 키다가 臨高遠望호야 任意逍遙호니
 淸風이 時至호고 明月이 自來호니 아지 못게라 天壤之間에 이긋치 즐거움을
 무어스로 代호쇼니

平生의 이리저리 즐기다가 老死太平호야 乘化歸盡호면 그 道훈가 호노라
 (『병와가곡집』 #909)

작품 <9>는 초장에서부터 공명을 헤아려 보니 영욕(榮辱)이 서로 반반이 라는 자신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¹⁶⁾ 중장 첫머리에 동문(東門)에 ‘괘관(掛冠)’¹⁷⁾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시적 화자는 벼슬살이의 경험이 있으나 자

16) 이런 깨달음은 일찍이 『청구영언』(진본)에 수록된 김삼현(金三賢)의 시조(“功名을 즐겨 마라 榮辱이 ㅅ이로다/ 富貴를 貪치 마라 危機를 ㅅ느니라/ 우리는 一身이 閑暇커니 두려운 일 업세라”(밑줄 필자))에서도 발견된다.

17) ‘괘관’이란 벼슬아치가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는 일을 일컫는 말로, 벼슬을 그만둔 벼슬아치가 관을 벗어 성문에 걸어놓고 떠났다는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신이 깨달은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서의 삶을 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려(田廬)에 돌아와 성경현전(聖經賢傳) 읽기, 앞 내에서 고기 낚기, 뒷 뒀에서 약 캐기, 높은 데 올라 멀리 바라보기[臨高遠望], 자유롭게 이리저리 거닐기[任意逍遙] 등 한가롭게 지내는 삶의 즐거움은 천 양지간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중장에서 보여주는 처사적 삶의 내용은 앞서 작품 <1>의 종장과 사뭇 닮아 있다. 이 작품은 종장에서 ‘노사태평(老死太平)’과 ‘승화귀진(乘化歸盡)’이라는 어휘를 배치하고 있는데, ‘노사태평’이란 늙어 죽을 때까지 태평하게 지내는 것이고 ‘승화귀진’이란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나오는 ‘요승화이귀진(聊乘化而歸盡)’이라는 구절에 근거한 것으로 천지자연의 이치에 만족하고 순응하여 살다가 생명이 다 하면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 욕망에서 벗어나 깊은 성찰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시적 화자는 노년의 이상적인 삶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 시조를 보도록 하자.

<10>

功名과 富貴과란 世上 스름 다 맞기고

가다가 아모디나 依山帶海處에 明堂을 갈외서 五間 八作으로 黃鷄樓 맞치
집을 짓고 벗님네 다리고 晝夜로 노니다가 압 너에 물 지거든 白酒 黃鷄로 너
노리 가있다가

너 나이 八十이 넘거드란 乘彼白雲 흥고 흥늘에 올라가서 帝傍投壺多玉女를
너 혼자 남자되어 늙글 뒤를 모로리라 (『병와가곡집』 #1100)

작품 <10>은 초장에서 ‘공명과 부귀는 세상 사람에게 다 맡긴다’고 하여 부귀공명에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점은 작품 <9>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후에 제시된 삶은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우선 기거하는 공간부터

달라지는데 앞서 작품 〈3〉, 〈4〉, 〈5〉에서는 ‘초당(草堂)’이, 작품 〈9〉에서는 ‘전려(田廬)’라는 어휘가 선택된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오간(五間) 팔작(八作) 지붕의 황계루(黃鶴樓)¹⁸⁾ 같은 집’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황계루’는 중국의 3대 명루(名樓) 중 하나인 ‘황학루’인지 아닌지 그 진위를 떠나 일단 ‘초당’이나 ‘전려’ 등이 의미하는 소탈한 공간이 아닌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곳에서 벗들을 데리고 밤낮으로 노닐다가 앞 냇가에 물이 지면 막걸리(白酒)와 누른 닭고기(黃鷄)를 준비해 놀이를 가는 모습은 작품 〈2〉의 중장에 제시된 유락적인 삶의 모습과 닮아 있다. 게다가 종장에서는 나이가 팔십이 넘으면 백운(白雲)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옥황상제 옆에서 투호(投壺)하는 여러 옥녀(玉女)들을 ‘나 혼자’ 입자 되어 살겠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한다. 벗들과 술을 즐길 뿐만 아니라 많은 선녀들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다는 여색의 욕망을 표출한 점은, 늙도록 안락하게 지내며 천리에 순응하여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작품 〈9〉와는 현격히 다른 태도라 하겠다. 종장에서 천상계를 끌어와 환상적인 분위기를 설정하면서 속세의 부귀공명의 욕망을 초탈하여 신선의 세계에까지 넘나드는 상상을 보여준 점 역시 작품 〈10〉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작품 〈9〉와 〈10〉은 모두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점에서는 공통되나, 지향하는 삶의 방향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4. 남성의 이상적 삶의 변주와 그 의미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두 편의 사설시조(〈1〉, 〈2〉)는 이상적 삶에 대한 욕

18) 작품 원문에는 ‘황계루’라 되어 있으나 이를 ‘황학루(黃鶴樓)’의 오기(誤記)로 보기도 한다. ‘황학루’는 중국 호북성(湖北省) 무한시(武漢市) 장강(長江) 강변에 있는 누각으로 악양루(岳陽樓), 등왕각(滕王閣)과 함께 강남 3대 명루(名樓)로 꼽힌다.

망이 숨김없이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정보의 시조(〈2〉)는 “자신의 내면과 정직하게 마주하고 노래할 수 있는 솔직함”¹⁹⁾이 잘 반영된, 풍요로운 물질적 조건 속에서 마음껏 만년을 즐기는 삶을 그린 작품이라 하겠다. ‘공성신퇴’라는 어휘가 초장에 배치되어 있으나 작품의 초점은 공성신퇴 후의 호기롭고 유락적인 삶에 맞춰져 있다.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작품 〈2〉는 18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시조 향유자들에게 널리 회자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풍요로운 물질적 조건에 기반한 유락적인 삶은 조선 후기 문화의 한 특징으로 거론되는 ‘도시 유흥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²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오락과 유흥의 소비자가 등장하면서 〈2〉와 같은 노래가 이에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향유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가운데 작품 〈1〉과 〈2〉에서 보여준 남성의 이상적 삶이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품 〈3〉, 〈4〉, 〈5〉, 〈9〉, 〈10〉 등으로 변주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3〉, 〈4〉와 같이 호기롭고 유락적인 삶의 표현이 강조된 경우는 현실과 욕망 사이의 갈등은 문제되지 않고 풍요로운 물질적 조건 속에서 유흥과 풍류를 즐기는 삶만이 부각되어 있다. 특히 관련되는 노랫말을 끌어와 내용을 확장하여 풍류 현장을 실감나게 표현한 작품(〈4〉)은 유흥공간의 간섭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유흥공간의 분위기에 따라 노랫말이 선택 참가되면서 변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유락적 분위기의 고조와 더불어 풍요로운 물질적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유흥을 만끽하는 자신을 부각시킴으로써 호기로운 삶의 주인공을 ‘남아(대장부)’에서 ‘나’로 구체화하는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19) 신경숙, 앞의 논문, 265면.

20) 조선 후기 도시 유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정인숙, 『19세기~20세기 초 가사에 나타난 근대도시 공간의 소비와 유흥』, 『한국시가연구』27, 한국시가학회, 2009)

그런가 하면 작품 〈5〉는 처음부터 부귀공명의 실현 불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는 점에서 출세하기가 쉽지 않은 계층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대장부로 태어나 부귀공명을 이루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라 할 때, 이를 쉽게 해 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작품 〈6〉에 주목해 보면, 작자 김유기가 중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출사의 기회가 차단된 처지임을 고려할 때 초장에서부터 ‘장부로 태어나서 입신양명을 못한다면~’이라는 어구가 배치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작품 〈5〉는 부귀공명을 쉽게 이룰 수 없는 계층적 한계에 공감하는 수용자가 적극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록 물질적 조건을 기반으로 한 유락적 삶은 가능하나 출사를 통한 외부적 성공은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의 고민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선택한 삶에 대해 ‘사무한신(事無閑身)’이라는 어휘를 끌어와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 소신을 드러내면서도 ‘자포자기’라 평가하는 남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정황이 포착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고민과 갈등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작품 첫머리에서부터 부귀공명의 욕망을 초탈한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 〈9〉와 〈10〉은 작품 〈5〉에서 보이는 외부 세계와의 부조화나 갈등은 발견할 수 없다. 두 작품 모두 세속적 출세의 욕망에서 한걸음 떨어져 초연한 태도를 견지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작품 〈9〉의 경우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자발적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것으로 추측되는바 출사의 경험이 있는 사대부로서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삶을 모색하는 성숙한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승화귀진(乘化歸盡)’의 어휘를 선택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되는데, 부귀공명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한가롭게 지내다 순리대로 생을 마감하는 삶이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리라 추측된다. 그런가 하면 작품 〈10〉은 나이 팔십 이후의 여생을 천상계의 환상적 공간에서 선녀들과 함께 늙는 줄 모르고 살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세속적 출세의 욕망은

초탈했을지언정 여색(女色)이나 장수(長壽)에 대한 욕망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측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육체적 욕망을 여전히 갈망하고 오래도록 살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은, 어찌 보면 솔직한 내면의 고백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작품 <10>이 무정향적이고 향락적인 삶의 지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즐거운 인생 혹은 노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작품 <9>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출사의 경험이 있던 그렇지 않은 작품 <9>와 <10>에서 노년의 행복한 일상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점은, 늙어서의 편안한 삶 혹은 쾌락적 삶을 갈구하는 통속적 욕망을 스스로 없이 표출한 것으로 추상적 이념이 아닌 구체적 삶의 일상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면모를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의 이상적 삶을 제시한 작품 <1>과 <2>는 오랫동안 향유되면서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그 노랫말이 변주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어떻게 한 평생을 살 것인가’는 누구에게나 던져진 중요한 문제라 하겠는데, 본고에서 살펴본 여러 시조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목소리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있다. 거기에는 욕망을 드러낸 솔직한 고백도 있고 욕망에서 과감히 초탈한 듯한 선언도 발견되는데 무엇보다 즐거운 인생, 노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게 드러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작품 <1>은 남성의 이상적 삶을 일대기적 구성을 갖춰 제시하고 있어 후대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수용자에 의해 장편으로 변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압축적인 시조로 형상화 되던 남성의 이상적 삶이 구체적인 서술을 바탕으로 하는 가사 장르에 수용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남자가>가 이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20세기 초까지 널리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옥설화담(玉屑華談) 계열 가사 역시 ‘기남자(奇男子)’라는 캐릭터를 통해 현세적 복록을 누리하고자 하는 통속적 욕망을 반영²¹⁾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런가 하면 작품 <2>는 민속가면극 ‘수영야유(水營野遊)’²²⁾의 제1과장인 양반과장에서 처음 수양반(首兩班)이 장내(場內)를 정돈시키고 재담을 하는 대목에 삽입되어 있어 흥미롭다.²³⁾ 수영야유의 양반과장이 주로 말뚝이의 독설과 풍자로서 양반의 이면을 폭로하고 양반계급의 무능과 허세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할 때,²⁴⁾ 작품 <2>는 양반의 호사스럽고 유락적인 삶의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시조에 나타난 공성실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은 <풍월강산(風月江山)>이라는 판소리 단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⁵⁾ 대장부로서 공명을 이루고 은퇴한 뒤

21) 김현식, 「<옥설화담>의 변이양상과 수용자의 욕구와 반응」, 『한국시가연구』35, 한국시가학회, 2013, 222면.

22) ‘수영야유’는 부산시 동래구 수영동에 전승되고 있는 민속가면극을 일컫는다.

23) 수양반의 재담에는 작품 <2>가 종장이 생략된 형태로 삽입되어 있다. (“수양반 : 跣元狗吠堯는 堯非不仁이로되 狗故吠非其主라, 少年堂上 아계(아기) 道令 前後左右 버려있고, 말 잡아 북 메우고, 쇠 잡아 장기매고, 名姓 빛이 깽쇠치고, 雲峰내기 징치고, 遮日 깔고 덕석치고, 술 비비고 떡 거르며(모두 逆說) 鴻門宴 높은 잔치, 항장영 칼춤 출 제이 몸이 한가하여 功成身退後에 臨泉에 草堂 짓고, 萬卷詩書 사아 놓고 金樽에 술 빛어 絶代佳人 곁에 두고, 碧梧桐 거문고 줄 골라 壁上에 걸어두고 南風詩를 和答할 제 었다. 이 계기를 불고 경각대명 갈 연식들 저희라사 兩班인체로 兩班의 舍廊 앞에서 밤이 맞도록 웅박쟁쟁을…(半唱辭說調)(首兩班이 樂隊를 向하여 紗扇을 흔들면 風物치고 五廣大가 춤을 추며 三四分 놀다가)”) (최한복 구술, 강권 정리, 『水營野遊劇』, 『국어국문학』27, 국어국문학회, 1964, 233~234면, 밑줄 필자)

24) 위의 논문, 248면 참조.

25) “대장부 공성실퇴지후로 할 일이 바이 없어/ 죽장망혜로 풍월 찾아 대관강산하여 보세/ 봉래산 가자한들 약수가 둘러 있고/ 곤륜산 바라보니 낙포운이 멀었구나/ 위으로 천상선경 양양불급 무가내하/ 인간의 만고경치 차례차례 찾아갈 제/… 산시청담 잠깐 보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어촌낙조 유교변에 완보로 내려와서/ 전당강에 배를 타고 유미강에 올라앉아

에 죽장망혜로 풍월을 찾아다니며 태평성대를 즐긴다고 하는 노랫말 속에는 강산을 유람하며 한가히 유유자적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욕망이 잘 투영되어 있다.

우리 시가문학을 살피다 보면 삶을 되돌아보며 인생을 성찰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작품을 종종 만나게 된다. 앞으로 대상의 폭을 넓혀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노년의 삶을 다룬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 세계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3.
- 김상진, 『시조에 나타난 조선 후기 풍속도-이정보 시조를 중심으로』, 『온지논총』27, 온지학회, 2011.
- 김현식, 『〈옥설화담〉의 변이양상과 수용자의 욕구와 반응』, 『한국시가연구』35, 한국시가학회, 2013.
- 김홍규 외 편저, 『고시조대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 류해춘,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가활동의 양상』, 『시조학논총』21, 한국시조학회, 2004.
- 박노준, 『이정보 시조와 퇴행 속의 진경』, 『고전문학연구』8, 한국고전문학회, 1993.
- 신경숙, 『사설시조-사대부가 노래한 시정 풍속도 - 이정보』, 김종철 외,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2, 휴머니스트, 2006.
- 이상원, 『이정보 시조 해석의 시각』, 『한국시가연구』12, 한국시가학회, 2001.
- 이창배 편저, 『가요집성』, 흥인문화사, 1976.
- 정인숙, 『19세기~20세기 초 가사에 나타난 근대 도시 공간의 소비와 유희』, 『한국시가연구』27, 한국시가학회, 2009.
- _____, 『〈남자가〉에 나타난 ‘기남자’의 일생 서술의 특징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 금릉물색 구경하고 오월강산 다 본 후에/ 동해를 건너보니 아동방 금수강산/ 동금강 서구 월 남지서색은 반공이라/ 남산송백 울울창창 한강유수 호호양양/ 춘대일월 태평기상 만만 세지금탕이라/ 아마도 우리 인심 강구요 격양가로 성세태평 즐겨보세”(이창배 편저, 『가요집성』, 흥인문화사, 1976, 209~210면, 밑줄 필자)

28, 국문학회, 2013.

조태흠, 『이정보 시조에 나타난 도시시정의 풍류』, 『한국문학논총』38, 한국문학회, 2004.

최한복 구술, 강권 정리, 『水營野遊劇』, 『국어국문학』27, 국어국문학회, 1964.

〈Abstract〉

The Men's Ideal Lives and the Aspects of their Variation in Sijo

Jeong, In-Soo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n's ideal lives and the aspects of variation in Sijo. In this paper the focus is two texts of Saseol-Sijo. One is the Saseol-Sijo without any known author, the other is the Saseol-Sijo written by Lee Jeong-bo. These works were enjoyed by many people to posterity, and they were played a variation.

The first aspect of variation is the emphasis on men's magnanimous and amusable life. This aspect is thought to be a result of the interference of entertainment space. The second aspect of variation is to show the awareness of impossibility of riches and honors and belief in his alternative life. We can see the conflict between reality and desire. This case is thought to be enjoyed by the person who can sympathize with that situation. The third aspect of variation is to show the transcendence of desire for worldly success and the interest in a happy old age. This case is worthy of notice because it shows the interest in old age. This case expresses the desire for comfortable life or pleasure-seeking life, and it is thought to be more concerned with a concrete everyday life than an abstract idea.

Sometimes we can see the works that show reflection of his(her) life and mature attitude to life. More studies on these works should be done.

Key words : men, an ideal life, desire, variation, amusement, an alternative life, old age

이 논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 심사를 하고
2015년 1월 2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